

규장각 소장 嶺營藏板의 현황과 성격

김 남 기*

- I. 머리말
- II. 규장각 책판의 소장 경위와 현황
 - 1. 책판의 소장 경위
 - 2. 책판의 현황과 성격
- III. 규장각 소장 영영장판의 현황과 성격
- IV. 맺음말

국문초록

규장각은 현재 104종 17,821장의 책판을 소장하고 있는데, 이들 책판은 조선후기 중앙과 지방 출판문화의 경향과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經部가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史部·子部·集部 등의 책판도 여러 종이 있다.

『奎章閣所藏冊板目錄』에서 잘못 분류한 책판을 재분류하여 규장각 소장 책판을 적시하면 경부 54종, 사부 13종, 자부 11종, 집부 26종이다. 이들 책판은 주로 교육을 통한 유학의 진흥과 인재의 양성, 동시에 왕권의 강화와 臣民의 교화를 위한 목적에서 제작되었다.

규장각 소장 책판의 제작 기관은 內閣·芸閣·春坊 등 중앙 관서는 물론이고, 嶺營과 寧邊府의 지방 藏板을 망라하고 있다. 그리고 책판의 제작 시

* 안동대 한문학과 교수 / knk5671@andong.ac.kr

이 논문은 「규장각 소장 책판의 현황과 가치」(『古典籍 2』, 한국고전적보존협의회, 2006)에 게재되었던 논문을 수정·보완하고, 영영장판에 대한 논의를 보강한 것이다.

DOI URL: <http://dx.doi.org/10.18399/actako.2017..66.005>

기는 18세기부터 19세기 후반까지이다. 여러 관서의 책판 중에서 영변부장관은 1805년, 내각장판 정부는 1820년, 영영장판은 1822년부터 1832년, 춘방장판은 1875년과 1879년 사이에 제작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규장각 소장 책판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여러 기관의 책판이 이관되었다. 1907년 이후 춘방 등의 책판이 帝室圖書로 이관되었다가 1913년에 조선총독부로 옮겨졌는데, 이는 『朝鮮總督府參事官分室關係書類』 소장 책판 목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영영과 영변부의 장관은 현재까지 이동 시기와 경로를 자세히 확인할 수 없지만 1913년 이후에 총독부가 주관하여 영영과 영변부의 책판을 이관하였고, 경복궁 千字庫에 보관하다가 1975년에 서울대학교에 이관한 것으로 추정된다.

규장각 소장 영영장판은 『논어언해』, 『논어집주대전』, 『맹자언해』, 『맹자집주대전』, 『중용언해』, 『중용장구대전』, 『대학언해』, 『대학장구대전』, 『시경언해』, 『시전대전』, 『서전언해』, 『서전대전』, 『주역언해』, 『주역대전전의』, 『상례비요』, 『소미가속점교부음통감절요』, 『소학언해』 등 17종 4,139장이다. 정부가 15종, 사부와 자부가 각각 1종이다. 이들 책판은 주로 교육용 도서 간행을 위한 목적에서 제작되었는데, 조선후기 경상도의 출판문화를 대표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규장각 소장 영변부장판, 전북대 박물관 소장 完營藏板도 영영장판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奎章閣所藏冊板目錄』은 현재 미비한 점이 많기 때문에 향후 규장각 책판에 대한 전면적이면서도 정밀한 조사·정리가 진행되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책판의 제작과 간본의 보급, 책판의 이전 시기 및 경로 등에 대한 연구도 시급한 상황이다. 나아가 규장각 소장 영영장판과 영변부장판, 전북대 박물관 소장 完營藏板에 대한 비교 연구는 물론이고, 여타 감영 책판의 현존 여부 내지는 망실 이유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 주제어

규장각 소장 책판, 중앙과 지방의 출판, 영영장판, 교육용 도서, 경상도 출판문화

I. 머리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하 규장각으로 약칭)에는 현재 冊板 104종 17,821장이 소장되어 있다.¹⁾ 규장각에서는 소장 책판 목록을 조사·정리하여 公刊하지 않은 채 내부적으로 관리하다가 2004년 12월에 이르러서야 『奎章閣所藏冊板目錄』 1책을 간행하여 학계에 공개·보급하였다. 『奎章閣所藏冊板目錄』이 간행됨으로써 규장각 책판의 현황과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책판 이미지를 연동하여 제공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奎章閣所藏冊板目錄』은 四部 체계에 따라 책판을 분류하고, 各部 내에서 서명을 가나다 순서로 배열하였다. 책판에 대한 정보는 청구기호, 목판번호, 편저자명, 간행사항, 형태사항, 주기사항, 내용(목차), 간략 해제, 비고 등의 순서로 기술하였다. 주기사항에서는 序跋 및 刊記 등을 중심으로 해당 책판의 편찬·간행 관련 사항을 기술하였고, 간략 해제에서는 찬술 시기와 편찬 경위 등을 밝혔으며 비고에서는 책판의 보존 상태와 결판 내지 파손 여부를 적었다. 『奎章閣所藏冊板目錄』에서는 사부 분류에 따라 책판의 현황을 經部 54종, 史部 21종, 子部 17종, 集部 12종으로 정리하였다. 동일 도서의 책판을 제외하고, 書名으로만 본다면 경부 24종, 사부 18종, 자부 15종, 집부 12종 총 69종이다.

그런데 史部로 분류한 『光廟御製訓辭』, 『御製謹政訓諭』, 『御製常訓』, 『御製續常訓』, 『御製遵昔年定銅闈冠禮文』, 『御製訓書』, 『揄揚盛烈錄』, 子部로 분류한 『御製古今歷代龜鑑』, 『御製樹德全編』, 『御製心鑑』, 『御製自省編』, 『御製

1) 『奎章閣所藏冊板目錄』(서울대학교 규장각, 2004) 刊行辭에는 “나라의 공식 출판 업무를 담당하였던 官署인 校書館의 책판 102종 17,821장이 소장되어 있다고 하였으나 『坤輿全圖』(청구기호 假24)와 『肅宗御筆』(청구기호 假22) 2종을 빠뜨리고 합산한 결과이다. 그러나 『奎章閣所藏冊板目錄』에는 앞의 2종도 수록되어 있다. <<http://e-kyujanggak.snu.ac.kr>> 그리고 규장각 소장 책판에는 내각[규장각]과 교서관[芸閣] 뿐만 아니라 춘방·보양청·영영·영변부 등의 책판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續自省編』, 『御定朱書百選』은 集部 別集類 御製 내지는 一般으로 분류해야 맞다. 그러나 이렇게 분류하지 않은 것은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의 영향이 크다. 예를 들면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의 경우 『御製謹政訓諭』를 사부 詔令·奏議類 조령과 집부 별집류 어제, 『御製常訓』을 사부 조령, 자부 유가류, 집부 별집류 어제 등에 뒤섞어서 수록하고 있다. 따라서 사부와 자부에 편제된 御製는 집부로 새롭게 편입시켜야 한다. 이를 감안하여 재정리하면 규장각 소장 책판은 經部 54종, 史部 13종, 子部 11종, 集部 26종으로 새로 분류해야 한다. 2장에서는 이런 분류 체계에 따라 규장각 소장 책판의 간지와 간년, 권수와 판수, 완질 여부 및 결판 숫자, 해당 책판으로 찍은 도서의 현황 여부 등을 적시한다.

이에 앞서 간년과 간지가 확실한 1820년의 內閣藏板을 제외하고 『奎章閣所藏冊板目錄』에서 간지와 간년을 미상으로 적시하거나 잘못 비정한 春坊藏板과 寧邊府藏板·嶺營藏板 등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춘방장관은 시장원에서 세자의 講學을 돕기 위한 교재를 간행하기 위하여 판각한 책판으로 『春秋左氏傳』, 『禮記集說大全』, 『孝經大義』, 『童蒙先習』, 『全韻玉篇』, 『古今歷代標題註釋十九史略通攷』, 『少微通鑑節要』, 『小學諸家集註』 등 여러 종이 있는데, 간지가 ‘乙亥新刊’, 또는 ‘己卯新刊’으로 되어 있다. 규장각 소장 책판의 현황을 고려할 때 올해년은 1815년 내지 1875년, 기묘년은 1819년 내지 1879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시장원에서 1879년 9월 3일부터 1880년 11월 16일까지 세자의 강학 교재 간행을 위한 책판 제작과 보관 내역 등을 기록한 『侍講院冊役所日記』에 따르면 이때 『童蒙先習』, 『通鑑』, 『史略』, 『續史略』, 『全韻玉篇』 등을 판각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따라서 춘방장관의 올해년은 1875년, 기묘년은 1879년임을 알 수 있다.²⁾

다음으로 영변부장관 중에서 『中庸章句大全』·『大學章句大全』·『周易諺解』·『周易傳義大全』 등에 ‘乙丑○月日 寧邊府開刊’의 刊記가 새겨져 있는데,

2) 玉詠畧, 「侍講院의 書籍編纂과 刊行記錄 考察」, 『서지학연구 18』, 한국서지학회, 1999, 385~392면 참조. 김남기는 앞의 논문에서 춘방장관의 제작 시기를 1815년과 1819년으로 비정하였으나 옥영정의 논문에 의거하여 1875년과 1879년으로 확정하였다.

을축년은 언제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대학장구대전』과 『주역전의대전』에 있다. 『대학장구대전』에는 ‘乙丑四月日 寧邊府開刊’의 간기가 있는데, 여기에는 英祖가 1758년에 지은 서문이 실려 있다. 따라서 이 책판의 제작은 1805년이나 1865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규장각 소장 도서 중에서 『周易傳義大全』(奎中 73)에 ‘乙丑五月日 寧邊府開刊’이라는 간기가 있고, 이 책에 金履度(1750~1813)의 장서인인 ‘金履度印’이 찍혀 있다. 따라서 영변부에서 제작한 책판의 을축년은 1805년(순조 5)으로 확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영영장판의 제작 시기 문제이다. 간년이 확실한 책판은 『상례비요』이다. 『상례비요』의 경우 간기가 ‘崇禎五戊子夏’로 되어 있는데, 이는 1888년이다. 그리고 영영장판 경부 중에서 간기가 임오년인 책판은 『논어언해』·『논어집주대전』, 갑신년인 책판은 『맹자언해』·『맹자집주대전』, 병술년인 책판은 『서전언해』·『서전대전』, 무자년인 책판은 『중용언해』·『중용장구대전』·『대학언해』·『대학장구대전』·『시경언해』·『시전대전』·『주역언해』·『상례비요』, 임진년인 책판은 『소미가숙점교부음통감절요』이다. 이들 책판은 간년이 壬午新刊, 甲申新刊, 丙戌新刊, 戊子新刊, 壬辰新刊으로 되어 있는데, 제작 시기가 19세기 전반인지, 아니면 19세기 후반인지 확신할 수 없다. 『奎章閣所藏冊板目錄』에서는 대부분 19세기 전반, 즉 임오년은 1822년, 병술년은 1826년, 무자년은 1828년으로 명시하거나 추정하였다. 그리고 갑신년과 임진년은 연도를 비정하지 못하여 ‘甲申(?)’, 또는 ‘壬辰(?)’으로 표시하였다. 만약 다른 책판과 비슷한 시기에 판각된 것으로 본다면 갑신년은 1824년, 임진년은 1832년으로 비정할 수 있다.

그런데 영영장판으로 인출한 규장각 소장 도서 중에서 『주역전의대전』은 戊午四月重刊, 『대학장구대전』 등은 戊午五月重刊, 『논어언해』 등은 壬戌季春重刊, 『논어집주대전』 등은 乙丑四月重刊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무오년은 1858년, 임술년은 1862년, 을축년은 1865년이다. 규장각 소장 영영책판과 이로 인출한 도서는 ‘新刊’으로 되어 있고, 영영책판으로 인출한 도서는 ‘重刊’으로 되어 있어 그 선후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다. 따라서 규장각 소

장 영영책판에서 임오년은 1822년, 갑신년은 1824년, 병술년은 1826년, 무자년은 1828년, 임진년은 1832년으로 확정할 수 있다. 경상감영에서 경부책판을 30~40년 사이에 다시 제작한 것은 그만큼 이들 도서의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다. 다만 사서오경 등의 영영장판 중에서 19세기 전반에 제작한 책판은 남아 있고, 오히려 19세기 후반의 책판이 망실된 이유가 무엇인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향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奎章閣所藏冊板目錄』에서는 『상례비요』의 판각 연대를 1828년으로 비정하였으나 1888년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奎章閣所藏冊板目錄』에 『대학장구대전』은 간기가 경진년으로 되어 있으나 무자년의 잘못이고, 『주역언해』는 간기가 무인년으로 되어 있으나 무자년의 오류이다. 이는 이들 책판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결과이다. 2장에서는 앞서 고찰한 내용들을 반영하여 규장각 소장 책판의 제작 시기를 비정하여 제시한다.

규장각 소장 책판의 제작 기관은 內閣[奎章閣]·校書館[芸閣]·春坊[侍講院]·輔養廳 등 중앙 관서의 장관은 물론이고, 嶺營·寧邊府 등의 지방 장관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기관의 책판들이 언제 규장각으로 이관되었을까? 그리고 규장각 소장 책판의 현황과 성격은 어떠한가, 그 가치는 어떠한가?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II. 규장각 책판의 소장 경위와 현황

1. 책판의 소장 경위

현재 규장각에 소장된 책판 104종 17,821장 중에서 영영장판과 영변부장판 등 일부 책판의 경우 언제 어떠한 경로로 이관되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文證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도 다수 있다. 먼저 규장각 소장 도서와 책판 중에서 다른 기관에서 이관된 경위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규장각은

1907년에 職制와 업무를 개편·강화하고, 弘文館·侍講院·集玉齋·史庫의 장서와 經板閣의 판본 및 鑄字 등을 이전·관리하였다. 그리고 이때 수장하게 된 10만여 권을 총괄하여 帝室圖書라 명명하고, 1909년 11월에 『帝室圖書目錄』을 편찬하였다. 규장각은 이미 內閣藏板[奎章閣藏板]을 소장하고 있었는데, 추가로 侍講院의 春坊藏板 등이 1907년 즈음에 규장각으로 이관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경상도의 嶺營藏板과 평안도의 寧邊府藏板은 언제 규장각으로 이관되었을까? 영영장관과 영변부장관이 규장각에 이관된 시기는 문증이 없어 확정할 수 없으나 1913년 이후에 총독부 주관 아래 지방 감영의 책관을 이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조선총독부 參事官分室에서 편찬한 『朝鮮總督府參事官分室關係書類』³⁾ 소장 책관 목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에는 조선총독부 참서관분실이 1913년 10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 조사·정리한 판목 34종 9,184매가 수록되어 있다. 당시 참서관분실에는 第5庫에 16종 5,718매, 第8庫에 18종 3,466매의 판목이 소장되어 있었는데, ‘版木整理’ 항목에는 板木名과 枚數만 적혀 있다. 『朝鮮總督府參事官分室關係書類』에 실린 판목 서명과 매수, 규장각 소장 책관의 서명과 판수 및 간지 등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부를 제시하고, 이어서 사부·자부·집부를 함께 보인다.

참서관분실 목관	매수	규장각 소장 책관	판수	간지	결면수
대학언해	16	대학언해	16	내각	
중용언해	31	중용언해	31	내각	
논어언해	144	논어언해	144	내각	

3)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구관도서실에 소장되어 있으며 청구기호는 <0500 70-v.1-3>이다. 필사본으로 1책에는 事務關係書類, 2책에는 圖書目錄解題類, 3책에는 奎章閣沿革資料가 수록되어 있다. 참서관 분실에서 1913년 10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 조사·정리한 판목 목록은 1책 ‘一. 圖書整理事務의 經過概要’ ‘七. 版木整理’에 실려 있다.

맹자언해	291	맹자언해	291	내각	
시경언해	285	시경언해	288	내각	
서경언해	204	서전언해	204	내각	
역경언해	210	주역언해	210	내각	
효경언해	13	효경언해	13	춘방	
삼경사서정문	244	삼경사서정문	248	내각	1면
친자문	25	진초친문	12	미상	
옥편	77	전운옥편	76	춘방	2면
규장전운	89	어정규장전운	90	미상	
대학	46	대학장구대전	46	내각	
중용	74	중용장구대전	74	내각	
논어	392	논어집주대전	377	내각	29면
맹자	332	맹자집주대전	315	내각	
시경	337	시전대전	465	내각	
서경	410	서전대전	417	내각	2면
역경	660	주역전의대전	652	내각	22면
예기	744	예기집설대전	724	춘방	2면
춘추	475	춘추좌씨전	459	춘방	
효경대의	51	효경대의	32/24	춘방/보양청	

참사관분실과 규장각 소장 판목을 비교할 때 『대학언해』·『중용언해』·『논어언해』·『맹자언해』·『서전언해』·『주역언해』·『효경언해』·『대학장구대전』·『중용장구대전』은 판수가 동일하므로 1913년 이후 현재까지 온전하게 보전된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일부 책판에서 판수가 줄거나 늘어난 경우가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기 어렵다. 참사관 분실에서 조사·정리할 때 간지가 다르지만 서명이 동일할 경우 합산한 것인지, 그리고 이 이후에 일부 판목이 새로 들어온 것인지, 나아가 『규장각소장책판목록』의 경우에도 책판을 간지에 따라 정확히 분류하여 판수를 헤아렸는지의 여부도 알 수 없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책판의 목록 정리가 한 차례 더 엄밀하게

이루어져야 그 이유를 해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⁴⁾
 다음은 경부·사부·집부에 속하는 판목이다.

참서관분실 목판	매수	규장각 소장 책판	판수	간지	결면수
대전통편	167	대전통편	167	[내각]	61면
대전회통	203	대전회통	195/201	[내각]	2면/1면
소학언해	242	소학언해	251	내각	
국조보감	1213	국조보감	1216	[내각]	19면
숙종어필	8	숙종어필	4	미상	
지도	4	곤여전도	3	미상	1면
소학집주	153	소학제가집주	154	춘방	
통감	498	소미통감절요	510	춘방	
사략	336	고금역대표제주석집구 사략통고	338	춘방	
선원계보	534	선원계보기략	6	[내각]	序1~5, 권17 3면 소장
열성어제	379	열성어제	374	[운각]	11면
명가필적	50	명가필적	11	미상	

두 개의 표를 통하여 참서관분실이 1913년에 조사·정리한 판목과 현재 규장각 소장 판목을 비교할 때 영영과 영변부의 책판은 1913년까지 전혀 이관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참서관분실 책판 목록에는 嶺營과 寧邊府의 책판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현재 규장각에 소장된 내각과 춘방 등의 목판 일부도 누락되어 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건대 영영과 영변부의 책판 전체, 그리고 내각·교서관·춘방 등의 책판 일부는 1913년 이후에 총독부 주관 아래 책판이 이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총독부 주관 아래 이관된 책판은 1930년 당시까지 경복궁의 千字

4) 참서관분실과 규장각 소장 책판의 판수가 다른 원인에 대한 분석은 김남기의 앞의 논문 16~18면 참조할 것.

庫에 보관되었고,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쳐 1965년에 천자고의 수도관이 파열되자 누습이 책판에 끼친 영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후 1974년 4월에 17,637매에 대한 책판을 조사한 뒤 서울대학교로 이전되었고, 현재 규장각에서 소장·관리하고 있다. 향후 영영장판과 영변부장판의 이관 시기와 경위 등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2. 책판의 현황과 성격

四部 분류 체계에 따라 규장각 소장 책판의 현황과 종류, 성격 등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집부에 해당하는 책판 중 사부와 자부에 잘못 편입된 것은 집부로 옮겨 살펴본다.

1) 경부 책판

經部는 總經類·易類·書類·詩類·春秋類·禮類·孝經類·四書類·小學類로 분류된다. 규장각 소장 책판 중에서 경부에 속한 것이 많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論語』·『孟子』·『中庸』·『大學』의 四書類와 『詩經』·『書經』·『周易』·『春秋』·『禮記』의 五經類를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孝經類와 小學類 등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소학류에는 字書·韻書·蒙求書가 포함된다. 경부 책판 중에서 缺板이 있는 경우 비고란에 총 결판수를 제시한다.

사서는 내각·영영·영변부에서 판각한 『논어언해』·『논어집주대전』·『맹자언해』·『맹자집주대전』·『중용언해』·『중용장구대전』·『대학언해』·『대학장구대전』이 각 3종씩 소장되어 있다. 四書類의 경우 내각과 영영 장관은 대부분 완결이지만 영변부 장관은 완판이 하나도 없다. 이것은 五經類 등 기타 책판도 거의 유사하다. 영변부장판이 내각장판이나 영영장판보다 일찍 판각된 것도 그 이유의 하나가 되겠지만 관리를 소홀히 한 점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 영변부장판 『맹자집주대전』의 경우 1772년의 판목이 남아 있지만 이것으로 인출한 도서는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지 않고, 대신 <규중 1755>의

경우 1805년에 간행한 도서로 ‘乙丑四月日寧邊府開刊’의 간기가 있다. 이를 통해 영변부에서는 1805년에 『맹자집주대전』을 새로 판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책판의 서명·간지·간기·권수·판수·완결여부, 해당 책판으로 찍은 규장각 도서 등을 표로 보인다. 비교에는 결판의 숫자 등을 적는다. 간기는 ‘○藏板’은 빼고 간년만 적는다. 규장각 도서의 소장 여부는 향후 책판과의 면밀한 비교·검토를 통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간지 및 간년 등이 불명확하거나 추정된 경우는 [] 속에 표시한다.

서명	간지	간년	간기	권수	판수	완결	규장각 도서	비고
논어 언해	내각	1820	庚辰新刊	4	144	○	규 394 등	
	영영	1822	壬午新刊	4	143	○		
	영변부	[1805]	[乙丑○月日]	4	130	×		33판 결
논어집 주대전	내각	1820	庚辰新刊	20	377	×	규중 722 등	29판 결
	영영	1822	壬午新刊	20	385	×		6판 결
	영변부	[1805]	[乙丑○月日]	20	356	×		11판 결
맹자 언해	내각	1820	庚辰新刊	14	291	○	규 408 등	
	영영	1824	甲申新刊	14	288	○	가람고 181.1-D13e	
	영변부	[1805]	[乙丑四月日]	14	251	×		60판 결
맹자집 주대전	내각	1820	庚辰新刊	14	315	○	규중 368 등	
	영영	1824	甲申新刊	14	307	○	가람고 181.1-J868d	
	영변부	1772	崇禎紀元 後三壬辰	14	270	×		15판 결, 규중 1755년 1805년 판
중용 언해	내각	1820	庚辰新刊		31	○	규 368 등	
	영영	1828	戊子新刊		31	○	일사고 181.1-J959e a	
	영변부	[1805]	[乙丑四月日]		23	×		13판 결

중용장 구대전	내각	1820	庚辰新刊		74	○	규중 631 등	
	영영	1828	戊子新刊		73	○		
	영변부	1805	乙丑四月日		63	×	규중 1723	12판 결
대학언 해	내각	1820	庚辰新刊		16	○	규 730 등	
	영영	1828	戊子新刊		16	○	가람고 181.1-D13e	
	영변부	[1805]	[乙丑四月日]		15	×		4판 결
대학장 구대전	내각	1820	庚辰新刊		46	○	규 453 등	
	영영	1828	戊子新刊		43	○	가람고 181.1-J868d d	
	영변부	1805	乙丑四月日		31	×	규중 542 등	5판 결

오경 책은 『시경언해』·『시전대전』·『서전언해』·『서전대전』·『주역언해』·『주역전의대전』·『춘추좌씨전』·『예기집설대전』 등이 소장되어 있다. 春坊藏板인 『춘추좌씨전』·『예기집설대전』, 영영장판인 『상례비요』와 내각장판인 『삼경사서정문』을 제외하면 모두 내각·영영·영변부 장관 3종이 있다. 이 중에서 『상례비요』는 申義慶이 朱熹의 『朱子家禮』에서 喪禮 관련 원문을 위주로 하고 고금의 諸家 禮說을 참고하여 서술한 책인데, 金長生과 金集이 다시 수정·증보하였다. 영영장판과 간지 미상의 책판 2종이 소장되어 있다. 경상감영에서는 『상례비요』를 여러 차례 판각·간행하였다. 영영장판 간기가 있는 『상례비요』는 崇禎三壬寅秋, 崇禎四壬申夏, 崇禎四戊申秋, 崇禎五戊子夏 등이다. 임인년은 1782년, 임신년은 1812년, 무신년은 1848년, 무자년은 1888년이다. 규장각 소장 영영장판은 1888년의 책판이다. 그리고 삼경과 사서의 원문만을 뽑아 1820년 내각에서 간행한 『삼경사서정문』 1종이 있는데, 여기에서 함께 다룬다.

규장각 소장 嶺營藏板의 현황과 성격(김남기)

서명	간지	간년	간기	권수	판수	완질	규장각도서	비고
시경언해	내각	1820	庚辰新刊	20	288	○	규 345 등	
	영영	1828	戊子新刊	20	282	×		6판 결
	영변부	[1805]	[乙丑○月日]	20	256	×		41판 결
시전대전	내각	1820	庚辰新刊	20	465	○	규중 218 등	
	영영	1828	戊子新刊	20	456	○	규중 253 등	465판 추정
	영변부	[1805]	[乙丑○月日]	20	465	×		43판 결
서전언해	내각	1820	庚辰新刊	5	204	○	규 74 등	
	영영	1826	丙戌新刊	5	203	×		2판 결
	영변부	[1805]	[乙丑○月日]	5	197	×		32판 결
서전대전	내각	1820	庚辰新刊	10	417	×	규중 120	2판 결
	영영	1826	丙戌新刊	10	412	○	규중 1524	
	영변부	[1805]	[乙丑○月日]	10	421	×		42판 결
주역언해	내각	1820	庚辰新刊	9	210	○	규 73 등	
	영영	1828	戊子新刊	9	207	○		
	영변부	1805	乙丑七月日	9	197	×	규 1627	32판 결
주역전의 대전	내각	1820	庚辰新刊	24	652	×	규 18 등	32판 결
	[영영]	[1828]	[戊子新刊]	24	654	×	규 59 등	2판 결
	영변부	1805	乙丑七月日	24	583	×	규중 73	52판 결
준주좌씨전	춘방	1875	乙亥新刊	27	459	○	규 350 등	
예기집절 대전	춘방	1875	乙亥新刊	30	724	×	규중 283 등	2판 결
상례비요	영영	1888	崇禎五戊子夏	2	70	○		
	미상	미상		2	72	×		13판 결
삼경사서 정문	내각	1820	庚辰新刊	10	248	×	규중 557 등	1판 결

효경류로는 『효경언해』 1종, 『효경대의』 2종, 소학류로는 『동몽선습』 1종, 『어정규장전운』 1종, 『전운옥편』 1종, 『진초천문』 1종이 있다. 『효경언해』는

간지·간년 미상으로 되어 있지만 1879년의 春坊藏板으로 추정되고, 『효경대의』는 南宋 말엽의 학자 董鼎이 朱熹의 『孝經刊誤』에 의거하여 주석한 책으로 1874년 輔養廳, 1879년 춘방에서 판각한 것이다. 『동몽선습』은 朴世茂가 편찬한 蒙求書로 1879년 춘방에서 판각하였고, 『진초천문』은 당나라 智永이 쓴 천자문을 원나라 趙孟頫가 臨書한 몽구서이지만 간지 및 간년은 미상이다. 『御定奎章全韻』은 정조가 규장각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편찬한 韻書이고, 『전운옥편』은 『奎章全韻』을 모체로 하여 편찬한 部劃辭典이다. 『어정규장전운』은 복각본인데, 간지와 간년은 미상이다.

서명	간지	간년	간기	권수	판수	완결	규장각도서	비고
효경언해	[춘방]	[1879]	[己卯新刊]		13	○	규 143 등	
효경대의	보양청	1874	甲戌		24	○	규 1053 등	
	춘방	1879	己卯新刊		32	○	규 1051 등	
동몽선습	춘방	1879	己卯新刊		11	○	규 233 등	
어정규장전운	미상	미상		2	90	○	古 441.5-J466e	복각본
전운옥편	춘방	1879	己卯新刊	2	76	×	규 256 등	2판 결
진초천문	미상	미상			12	○		

2) 사부 책판

사부에 속하는 책판은 『古今歷代標題註釋十九史略通攷』 2종, 『坤輿全圖』 1종, 『國朝寶鑑』 1종, 『大典通編』 1종, 『大典會通』 2종, 『東國通鑑』 1종, 『瑤源系譜記略』 1종, 『少微家塾點校附音通鑑節要』 1종, 『少微通鑑節要』 1종, 『受教完文』 1종, 『御定人瑞錄』 1종 등 13종이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光廟御製訓辭』 등은 집부 어제류에서 다룬다.

서명	간지	간년	간기	권수	판수	완질	규장각도서	비고
고금역대표제주 석십구사략통고	춘방	1879	己卯新刊	9	338	○		
	[영변부]	[1800]	庚申四月日	8	319	×		9판 결
곤여전도	미상	1860	咸豐庚申降婁 海東重刊		3	×	규 26678	1판 결
국조보감	[내각]	[1909]		82	1216	×	규 22 등	19판 결
대전통편	[내각]	1785	乙巳彙輯	6	167	×	규 888 등	62판 결
대전회통	[내각]	1865	乙丑補輯	6	195	×	규 1302 등	1판 결
	미상	[1865]		6	201	×		2판 결
동국통감	미상	미상		56	533	×		23판 결
선원계보기략	[내각]	[1783]			6	×		서문 5판, 본문 권17의 3판만 소장
소미가속점교부 음통감절요	영영	1832	歲在壬辰	26	321	×		권1~24 결
소미통감절요	춘방	1879	己卯新刊	50	510	○	규중 910 등	
수교완문	미상	1866			5	×	經古 340-Su35	1판 결
어정인서록	미상	1794	甲寅初印		8	×	규 2832 등	서문 4, 6, 8 본문전체 결

3) 자부 책판

자부에 속하는 책판은 『古鏡重磨方』 1종, 『名家筆蹟』 1종, 『肅宗御筆』 1종, 『小學大文』 1종, 『小學諺解』 2종, 『小學諸家集註』 2종, 『夙興夜寐箴』 1종, 『心經附註』 1종, 『華東書法』 1종 등 11종이 소장되어 있다. 영영장판 『소학언해』는 19세기의 책판으로 추정된다. 『어제고금역대귀감』 등은 집부에서 다룬다.

서명	간지	간년	간기	권수	판수	완결	규장각도서	비고
고경중마방	영변부	1805	乙丑七月日		16	○	일사 고 170-Y56g	
명가필적	미상	미상			11	○		
숙중어필	미상	[경종]			4	○	규 11963	
소학대문	미상	미상		6	51	[○]		면수 대조 불가
소학언해	내각	[1744]		6	251	○	규 443 등	
	영영	[19세기]		6	248	○	[가람고 181.1So25o]	
소학제가집 주	춘방	1875	乙亥新刊	6	154	○	규 11010 등	
	미상	미상		6	160	○		
숙흥아매잡	미상	미상			3	○		
심경부주	영변부	1805	乙丑九月日	4	60	×	상백고 181.1346-J562s	8판 결
화동서법	미상	미상			27	○		

4) 집부 책판

집부 책판은 2종인 『御製常訓』을 제외하고는 모두 1종씩 소장되어 있다. 이는 총집류 어제, 별집류 어제, 별집류 일반으로 분류할 수 있다. 총집류 어제에는 『列聖御製』, 별집류 어제에는 『光廟御製訓辭』, 『光國志慶錄』, 『續光國志慶錄』, 『御製近八裕昆錄』, 『御製嚴堤防裕昆錄』, 『御製諭纂修諸臣』, 『御製祖訓』, 『御製追慕錄』, 『御製永世追慕錄』, 『御製謹政訓諭』, 『御製常訓』, 『御製續常訓』, 『御製遵昔年定銅闈冠禮文』, 『御製訓書』, 『揄揚盛烈錄』, 『御製古今歷代龜鑑』, 『御製樹德全編』, 『御製心鑑』, 『御製自省編』, 『御製續自省編』, 별집류 일반에는 『杜律虞註』, 『鳴臯集』, 『雅誦』, 『御定朱書百選』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 『御製諭纂修諸臣』은 『闡義昭鑑』의 서문이기 때문에 목판명을 『천의소감』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총집류 어제, 별집류 어제, 별집류 일반의 순서로

주요 사항을 제시한다. 별집류 어제의 경우 간지 미상인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은 윤각[교서관]에서 판각한 것으로 추정되기에 간지를 윤각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별집류 어제는 찬자 및 판각 연대 순서로 제시하되 속편의 성격의 지니는 글은 나란히 보인다.

서명	간지	간년	간기	권수	판수	완질	규장각도서	비고
열성어제	[윤각]	1726		18	374	×	규 2869 등	11판 결
어제심감	[윤각]	1742			6	×	규 5694 등	2판 결
광국지경록	교서관	1744			15	×	규 1184 등	14판 결
속광국지경록	내각	1771			8	×	규 1698 등	9판 결
어제상훈	윤각	1745	芸閣刊印		11	○	규 2430 등	史閣藏板
	윤각	1745	芸閣刊印		11	○		史閣藏板
어제속상훈	윤각	1758			7	×	규 2422 등	4판 결
어제자성편	[윤각]	1746			25	×	규 3224 등	26판 결, 文政殿編輯
어제속자성편	[윤각]	1759			15	×	규 3458 등	10판 결
광묘어제훈사	윤각	1747	芸閣開刊		9	×	규 5701 등	1판 결 沁都藏板
어제유친수제 신	[윤각]	1755			3	×	[규 1545 등]	1판 결, 闡義昭鑑 序
어제훈서	[윤각]	1756	齋室編錄		22	○	규 2427 등	沁都藏板
어제고금역대 귀감	윤각	1757	芸閣刊印		5	×	규 1730 등	史庫藏板
유양성열록	[윤각]	1762			5	×	고 5120-25	1판 결
어제조훈	[윤각]	1764			20	×	규 3436 등	1판 결
어제영제주모 록	[윤각]	1764			10	○	규 1476 등	
어제추모록	[윤각]	1770			4	○		
어제엄제방유 곤록	[윤각]	1765			6	×	규 3989 등	9판 결

어제근팔유근 록	교서관	1769	校書館刊 印		15	×	규 5698 등	1판 결, 奎章閣藏 板
어제근정훈유	[운각]	1771			6	×	규 5693 등	
어제수덕전편	운각	1771	芸閣刊印		13	×	규 3195 등	1판 결, 史庫藏板
어제준석년정 동위판례문	운각	1773	芸閣新鐫		9	×	규 5230 등	본문 2, 4, 간기 결, 史庫藏板
두울우주	미상	미상		2	72	○		
명고집	영변부	1833		10	66	×		8판 결
아송	미상	[1799]		8	71	○	고 3424-1 등	복각본
어정주서백선	미상	[1794]		6	94	○		복각본

규장각 소장 책판은 판수로 볼 때 경부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경부 중에서도 사서삼경은 내각장판·영영장판·영변부장판 3종이 모두 소장되어 있어 특히 주목된다. 이들 사서삼경을 포함하여 『효경언해』와 『효경대의』 등의 도서는 유학을 중시하던 조선의 학문 풍토를 보여주는 동시에 교육서로써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사부의 경우 『고금역대표제주석십구사략통고』, 『소미가숙점교부음통감절요』, 『소미통감절요』 등은 조선시대에 빈번하게 이용하던 역사 교재이다. 따라서 규장각 소장 책판은 당시에 가장 수요가 많았던 교육서의 간행·보급을 통하여 유학을 진흥시키려는 국가적 관심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집부의 경우 어제류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국왕의 권위를 높이고 신민을 교화하려는 文治主義 정책을 여실히 보여준다.

Ⅲ. 규장각 소장 영영장판의 현황과 성격

앞서 살펴본 규장각 소장 책판 중에서 영영장판 소장 현황을 종합하여 제

시하고 책판의 성격을 검토하고자 한다. 『奎章閣所藏冊板目錄』 중에서 영영장판이라는 刊地가 판각되어 있는 것은 『논어언해』, 『논어집주대전』, 『맹자언해』, 『맹자집주대전』, 『중용언해』, 『중용장구대전』, 『대학언해』, 『대학장구대전』, 『시경언해』, 『시전대전』, 『서전언해』, 『서전대전』, 『주역언해』, 『상례비요』, 『소미가속점교부음통감절요』, 『소학언해』 등 16종이다. 그런데 『주역전대전』의 경우 내각장판, 영변부장판, 간지 미상 장판 등 3종이 소장되어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사서오경의 경우 대부분 내각·영영·영변부장판이 소장된 것으로 볼 때 간지 미상의 장판은 영영장판으로 보아야 타당하다. 따라서 이를 포함하면 영영장판은 모두 17종이 된다.

그렇다면 규장각 소장 『鳴臯集』 책판의 경우 간지가 어디이고 간년은 언제일까? 『鳴臯集』은 선조 연간의 문신인 任鏞(1560~1611)의 문집이다. 그런데 이 문집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목판으로 판각되어 간행되었다. 초간본은 임전의 외현손 朴權(1658~1715)이 家藏詩稿를 바탕으로 저자의 遺文을 수집·편차하여 경상도 관찰사로 재임하던 1704년에 大丘에서 8권 1책의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초간본은 현재 규장각(규 6938) 등에 소장되어 있다. 중간본인 補刻本은 현손 任述이 金泉察訪으로 부임하여 초간본의 剜缺된 부분을 새로 판각하고, 鄭滌(1648~1736)에게 받은 서문과 李廷龜 등이 지은 挽詞 등을 새로 판각하여 1726년에 8권 2책의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보각후쇄본은 장서각(k4-5989)에 소장되어 있다. 삼간본은 7세손 任聖臯가 寧邊府使로 재임하던 중 초간본에 遺文 등을 추가하여 1833년에 10권 2책의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이 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한45-가200),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육당D1-A85) 등에 소장되어 있다. 현재 규장각 소장 『명고집』 책판은 10권 2책으로 편차되어 있고, 목차와 내용이 영변부 장관과 동일하기 때문에 영변부장판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1704년에 대구감영에서 목판을 제작한 뒤 초간본을 간행한 사실에 의거할 때 영영장판이 있었으나 현재는 일실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규장각에 소장된 책판 중에서 영영장판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간지가 판각되지 않은 『주역전의대전』을 포함하여 17종 4,139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간지 미상인 책판이 여러 종이 있고, 이 중에서 영영장판일 가능성이 있는 책판도 있다. 예를 들면 『두울우주』가 그 중의 하나이다. 현재 完營藏板 『두울우주』가 전북대 박물관에 소장된 것으로 보아 어쩌면 간지 미상의 『두울우주』는 영영장판일 가능성도 있다. 또한 일부 책판의 경우 판수를 잘못 헤아린 것도 있는 듯하다. 예를 들면 영영장판 『시전대전』이 그것이다. 영영장판은 板數가 456매로 되어 있는데, 465매의 오류로 보인다. 『시전대전』 내각장판의 경우 465매가 완질인데, 영영장판의 경우 완질본이고 내각장판과 서지 사항이 거의 같기 때문이다. 향후 판수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고, 만약 465매가 맞다면 규장각 소장 영영장판의 판수는 9매가 늘어난다. 여기에서는 일단 『奎章閣所藏冊板目錄』에 따라 456매로 계산하였다. 이것은 영변부 장판의 경우 43매가 결판인데도 465매로 적혀 있어 그 의문이 증폭된다. 다른 판목이 섞여 있거나 판수를 잘못 헤아린 듯하다. 따라서 향후 규장각 소장 책판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간지와 간년, 판수 등을 보다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규장각 소장 영영장판 제작 시기의 경우 임오년은 1822년, 갑신년은 1824년, 병술년은 1826년, 무자년은 1828년, 임진년은 1832년이다. 이에 의거하여 『奎章閣所藏冊板目錄』에 수록된 영영장판 중에서 간년 등을 잘못 파악하거나 명시하지 않은 책판을 제시하고 그 오류를 바로잡은 것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장구대전』은 1820년이 아니라 1828년이다. 목록에서는 刊記 무자년을 경진년으로 잘못 기록하였다. 『맹자언해』와 『맹자집주대전』에서 갑신년을 비정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1824년이다. 『주역언해』의 경우 무자년은 1828년인데, 목록의 ‘戊寅新刊’은 ‘戊子新刊’의 오류이다. 그리고 간지와 간년이 미상으로 된 『주역전의대전』은 경상감영에서 1828년에 판각한 영영장판으로 추정된다. 『소미가속점교부음통감절요』의 ‘歲在壬辰’은 1832년으로 추정된다. 『상례비요』의 ‘崇禎五戊子夏’는 1828년이 아니라 1888년이다. 『소학언해』의 경우 권수에 영조의 어제 서문이 실려

있는데, ‘歲甲子春二月下澣’이 적혀 있다. 갑자년은 1744년이다. 그런데 영영장판 『소학언해』는 후대에 판각한 것으로 그 시기를 확정할 수 없지만 아마도 19세기에 제작한 장판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영영장판의 현황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서명	간지	간년	간기	권수	판수	완질	규장각도서	비고
논어언해	영영	1822	壬午新刊	4	143	○		
논어집주대전	영영	1822	壬午新刊	20	385	×		6판 결
맹자언해	영영	1824	甲申新刊	14	288	○	가람고 181.1-D1 3e	
맹자집주대전	영영	1824	甲申新刊	14	307	○	가람고 181.1-J86 8d	
중용언해	영영	1828	戊子新刊		31	○	일사고 181.1-J95 9ea	
중용장구대전	영영	1828	戊子新刊		73	○		
대학언해	영영	1828	戊子新刊		16	○	가람고 181.1-D1 3e	
대학장구대전	영영	1828	戊子新刊		43	○	가람고 181.1-J86 8dd	
시경언해	영영	1828	戊子新刊	20	282	×		6판 결
시전대전	영영	1828	戊子新刊	20	456	○	규중 253 등	465매 추정
서전언해	영영	1826	丙戌新刊	5	203	×		2판 결
서전대전	영영	1826	丙戌新刊	10	412	○	규중 1524	
주역언해	영영	1828	戊子新刊	9	207	○		
주역전의대전	[영영]	[1828]	[戊子新刊]	24	654	×	규 59 등	2판 결
상례비요	영영	1888	崇禎五戊子 夏	2	70	○		
소미가죽점교 부읍통감절요	영영	1832	歲在壬辰	26	321	×		권1~2 4 결

소학언해	영영	[19세기]	甲子春二月	6	248	○	[가람고 181.1So25 o]
------	----	--------	-------	---	-----	---	-------------------------

위의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규장각 소장 영영장관은 『논어언해』, 『논어집주대전』, 『맹자언해』, 『맹자집주대전』, 『중용언해』, 『중용장구대전』, 『대학언해』, 『대학장구대전』, 『시경언해』, 『시전대전』, 『서전언해』, 『서전대전』, 『주역언해』, 『주역대전전의』, 『상례비요』, 『소미가숙점교부음통감절요』, 『소학언해』 등 17종 4,139장이다. 이 중에서 경부는 『논어언해』 등 15종, 사부는 『소미가숙점교부음통감절요』 1종, 자부는 『소학언해』 1종이다. 이들 책판의 공통점은 교육용 도서이다. 유교를 국시로 하는 조선왕조에서 유학의 보급과 진흥을 통한 인재 양성은 가장 중요한 문제였었고, 이를 위하여 이와 관련된 도서의 간행과 보급에 심혈을 기울였다. 조선후기에 내각에서 경서 등을 활자본으로 간행한 뒤 활자본 간행 도서를 지방 감영에 보내어 팔도의 감영에서 이를 목판본으로 간행하여 각 군현과 서원 등지에 보급하도록 하였다.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영영장관은 바로 이러한 출판 정책의 유산이자 조선후기 출판문화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영변부장관 18종 3,711판도 동일하다. 영변부장관의 경우 경부 15종은 영영장관과 서명이 동일하다. 이 외에 사부 『고금역대표제주석십구사략통고』 1종과 자부 『고경중마방』 1종도 교육용 도서이다. 다만 『명고집』은 임전의 7세손 임성고가 영변부사로 부임한 뒤 조상을 현창하기 위하여 간행하였다는 측면에서 성격을 달리한다. 또한 현재 전북대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60여종 5,059판의 完營藏板도 책판의 성격이 유사하다.

그런데 경상감영에서는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영영장관 이외에도 수많은 책판을 제작하여 도서를 간행하였으나 이들 책판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이다. 경상감영에서 제작한 책판은 『各道冊板目錄』과 『鑿板考』 등의 책판 목록은 물론이고, 영영장관으로 인쇄한 도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남아 있는 책판은 규장각 소장 영영장관의 실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향후 경상감영에서 제작한 책판과 이것으로 인출한 도서의 목록을 작성하여 경상도의 출판 관련 제반 사항을 연구하고, 책판이 망실된 이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동시에 팔도 감영의 책판 전체로 연구를 확대하여 지방의 출판문화를 총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IV. 맺음말

전통시대 출판에서 목판본과 활자본은 상보적인 관계였다. 활자는 국가에서 주조·관리하여 도서를 간행하였지만 한 번 도서를 인쇄한 뒤에는 활판에서 활자를 털어 보관하기 때문에 다시 인쇄하기 위해서는 활판을 다시 짜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활자는 책판에 비하여 마모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반영구적이었다. 이에 반하여 책판은 판목의 확보와 판각, 보관에 어려움이 있지만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책을 인출할 수 장점이 있었다. 私的으로 활자를 주조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는 매우 유용한 출판 수단이었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의 관청은 물론이고 문중이나 사찰 등지에서도 목판을 제작하여 도서를 간행하였다.

규장각에 소장된 104종 17,821장의 책판은 조선후기 출판문화의 수준과 경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經部가 대다수를 차지하지만 史部·子部·集部 등의 책판도 다수 있다. 또한 內閣·芸閣·春坊 등 궁중의 藏板은 물론이고, 嶺營과 寧邊府의 지방 감영 藏板을 망라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수의 책판을 소장한 기관으로는 규장각이 유일하다.

현재 규장각에서 소장하고 있는 책판의 제작 시기는 18세기부터 19세기 후반까지이다. 이전에도 많은 책판이 제작되었으나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규장각 소장 책판의 이전 시기와 관련하여 내각과 춘방 장관 등은 대부분 제실도서로 이관되었다가 1913년에 조선총독부로 옮겨졌는데, 이는 『조선총독부참사관분실관계서류』 소장 책판 목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

다. 그러나 영영과 영변부의 장판은 현재까지 이동 시기와 경로를 자세히 확인할 수 없다. 다만 1913년 이후에 총독부가 주관하여 영영과 영변부의 책판을 이관하였고, 경북궁 천자고에 보관하다가 1975년에 서울대학교로 이관한 것으로 추정된다.

규장각 소장 영영장판은 『논어언해』, 『논어집주대전』, 『맹자언해』, 『맹자집주대전』, 『중용언해』, 『중용장구대전』, 『대학언해』, 『대학장구대전』, 『시경언해』, 『시전대전』, 『서전언해』, 『서전대전』, 『주역언해』, 『주역대전전의』, 『상례비요』, 『소미가숙점교부음통감절요』, 『소학언해』 등 17종 4,139장이다. 이들 책판은 교육용 도서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조선후기 경상도의 출판문화를 대표하는 중요한 자료로써 그 가치가 크다. 이것은 규장각 소장 영변부장판, 전북대 박물관 소장 완영장판도 동일한 성격을 갖는다.

규장각 책판 목록과 참서관분실 목판 목록을 비교할 때 판수가 그대로 보존된 것도 있지만 일부는 판수가 줄거나 늘어난 경우도 있다. 판수가 줄어든 것은 대부분 보관 과정에서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판수가 늘어난 경우는 참서관분실의 목판과 규장각의 책판이 다른 판목이거나 정리 과정에서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향후 규장각 소장 책판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영영과 영변부 책판의 제작과 간본의 보급, 책판의 이동 시기 및 경로 등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상황이다. 동시에 규장각 소장 영영장판과 영변부장판, 전북대 박물관 소장 완영장판의 상호 비교 연구도 필요하고, 아울러 경상도·전라도·평안도 이외의 감영 책판의 현존 여부와 망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 이 논문은 2017년 6월 13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7년 6월 13일부터 6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7년 6월 16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참고문헌

자료

- 『各道冊板目錄』
-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
- 『奎章閣所藏冊板目錄』
- 『鏤板考』
- 『侍講院冊役所日記』
- 『帝室圖書目錄』
- 『朝鮮總督府參事官分室關係書類』

논저

- 김남기, 「규장각 소장 책판의 현황과 가치」, 『古典籍 2』, 한국고전적보존협의회, 2006.
- 김윤제, 「奎章閣所藏冊板의 내용과 소장처 분석」, 『대동고전연구 32』, 한림대학교 대동고전연구소, 2014.
- 玉泳晷, 「侍講院의 書籍編纂과 刊行記錄 考察」, 『서지학연구 18』, 한국서지학회, 1999.

The Present Condition and Character of Yeongyeongjangpan Owned by Kyujanggak

Kim, Nam-ki

Kyujanggak now owns 104 kinds and 17,821 blocks of woodblocks published in the central and local areas during the latter part of Joseon Dynasty. The woodblocks possessed by Kyujanggak are 54 kinds of Gyeongbu(經部), 13 kinds of Sabu(史部), 11 kinds of Jabu(子部) and 26 kinds of Jipbu(集部). These woodblocks were published mainly for the purpose of promotion of Confucianism through education, cultivation of talented individuals, consolidation of royal authority and reformation of subjects. The organizations that produced the woodblocks covered not only the central government agencies, such as Naegak(內閣), Wungak(芸閣) and Chunbang(春坊), but also local woodblocks of Yeongyeong(嶺營) and Yeongbyeonbu(寧邊府). And the period when the woodblocks were made was from the 18th century to the latter of the 19th century.

The woodblocks housed by Kyujanggak were transferred to a variety of organizations through different channels. After 1907, woodblocks such as Chunbang were transferred to Jesildoseo(帝室圖書) and then moved to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in 1913. The woodblocks in Yeongyeong and Yeongbyeonbu were

transferred to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fter 1913, stored in Cheonjago(千字庫) of Gyeongbok Palace, and then moved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1975.

The Yeongyeongjangpans owned by Kyujanggak were 17 kinds and 4,139 blocks including Noneo Eonhae, Noneo Jipjudaejeon, Maengja Eonhae, Maengja Jipjudaejeon, Jungyong Eonhae, Jungyong Janggudaejeon, Daehak Eonhae, Daehak Janggudaejeon, Sigyeong Eonhae, Sijeon Daejeon, Seonjeon Eonhae, Seonjeon Daejeon, Juyeok Eonhae, Juyeok Daejeonjeoneui, Sangryebiyo, Somigasukjeomkyobueumronggamjeolyo, and sohak Eonhae. There are 15 kinds of Gyeongbu, one kind of Sabu and one Jabu. The woodblocks were produced as educational books led by Gamyong of Gyeongsangdo from 1882 to 1892, and are important materials that represent the publication culture of Gyeongsangdo in the latter part of Joseon Dynasty.

key words : woodblocks possessed by Kyujanggak, publication in the central and local areas, Yeongyeongjangpan(嶺營藏板), educational books, publication culture of Gyeongsangdo

